

머니투데이

보인고, 내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든다

B&C 고문순 기자 | 입력 : 2014.06.26 15:40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가 “내 인생,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슬로건 하에 학생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학교 문화를 일궈가며 주목 받고 있다.

학교는 인생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같은 보인고의 정책은 수준 차이가 확실한 영어, 수학 수업의 효율성을 위한 수준별 수업에서 드러난다. 영어, 수학 소인수과목(13인 이하)로 기초영어, 고급영어, 기초수학, 고급수학 개설 및 사회과목 소인수과목 개설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방과후 주문형 강좌를 수준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위해 전교생 스터디 플래너 사용 의무화 및 스터디 그룹 활성화, 토론식 과제 수행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학습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자치 활동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한 필수 코스, 스스로 부딪혀 만들어보기”라는 취지로 학교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학생회 조직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발적 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기획부, 교류정보부, 종합지원부, 홍보부, 자율기획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의회 출범, 선후배 멘토링 제도, 봉사단, 학생생활 개선, 생활복 제작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선도부를 두어 자발적인 핸드폰과 두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이 직접 만들고 선택하는 동아리 약 50여 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보인고의 학생들은 기획,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있다.

독립심, 책임감, 협동심, 리더십 등을 키우는 인성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인고의 정책 덕분에 학생들은 주체 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획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고 있다.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 여행의 시작’, 보인고등학교가 앞장 서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